

加減淸心蓮子飲으로 치료한 질건조증 환자 치험 3예에 대한 임상 보고

조영도 · 임성민* · 김형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Clinical Report on Three Cases of Vaginal Dryness Treated with Gagam-chungsimyeonjaeum

Yeong Do Cho, Sung Min Lim*, Hyung Jun Kim

Departmen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Vaginal dryness is not a rare complaint of postmenopausal women. But the concerns and treatments about this were negative in patients and doctors. So we treated with Gagam-chungsimyeonjaeum(加減淸心蓮子飲) on three cases complaining vaginal dryness. As a result vaginal dryness was improved in all cases. Through this case report, we expect that more interests and participations in vaginal dryness will be got more qualities in life of postmenopausal women.

Key words : vaginal dryness, Gagam-chungsimyeonjaeum(加減淸心蓮子飲)

서 론

근래 인류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폐경과 같이 연령과 관계된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폐경 연령은 50세 전후이고, 평균 수명은 76세로 폐경 기간이 일생의 1/3가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폐경기 여성의 관리가 사회적·의학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능력의 향상과 함께 이 시기의 여성이 양질의 삶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관심사 역시 증가하고 있다¹⁾.

腔乾燥症은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보는 증상으로 문헌상 腔乾燥症이라는 독립된 질환명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更年期 症候群 및 閉經의 한 증상이나 性交痛의 한 원인으로 다루어진다²⁾.

<素問·上古天真論>에 “女子... 五七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 七七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라고 하여 閉經 前後에는 肾氣가 衰하고 天癸가 竭하며 衝任

脈이 虛하여 生殖機能이 상실되고 腎臟의 기능이 쇠퇴하여 隅陽平衡이 失調되므로 更年期症候群 및 閉經은 肾虛가 그 病因 · 病機의 기본이 된다³⁾.

腔乾燥症은 그 자체로는 痛症도 없고 日常生活에 큰 不便感을 못 느껴 대수롭지 않은 症狀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結婚生活을 하는 婦人들의 경우 性生活을 할 때 痛症이 오기도 하고, 이에 性交가 不可能하기도 하여 結婚生活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婦人科 領域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저자는 “上盛下虛, 心火炎上, 口苦, 咽乾, 煩渴, 小便赤澁, 成淋” 등의 病症을 治療한다고 하였으며 後世 醫家들에 의해 泌尿器系 疾患, 神經 疾患, 婦人科 疾患系統에 주로 사용되어온 加減淸心蓮子飲⁴⁾를 이용하여 腔乾燥症으로 본원에 來院한 3例에서 有意한 治療 效果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증례 1

1) 姓名 : 흥 ○ ○ (F/48)

2) 主訴 : 腔乾燥症, 月經不通, 上熱感, 疲勞

3) 發病日 : 2002년 5월초

* 교신저자 : 임성민, 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 21-1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 E-mail : 7696lim@hanmail.net, · Tel : 043-649-1901

· 접수 : 2004/06/01 · 수정 : 2004/06/30 · 채택 : 2004/07/29

4) 現病歴 : 상기 환자는 보통 체격의 여성으로 2002년 5월초부터 膀乾燥症이 있으며 月經이 안나오고 上熱感이 있으며 痞勞를 주诉로 별무 치료해오던 중 보다 적극적인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2년 6월 7일 본원에 내원하였다.

5) 望聞問切 : 食慾 正常, 消化 正常, 大便 1회/1일, 小便 正常, 睡眠 不眠, 月經不通, 舌紅少苔, 脈細數

6) 治療內容 : 加減淸心蓮子飲*

7) 治療經過 : 加減淸心蓮子飲 20첩 복용 후 2002년 6월 23일 두 번째 내원시에는 膀乾燥症과 上熱感은 소실되었고 痞勞 狀態는 조금 납아 있었으며 月經不通은 여전했다.

2. 증례 2

1) 姓名 : 허 ○ ○ (F/54)

2) 主訴 : 膀乾燥症, 上熱感, 性慾減退, 後頭痛

3) 發病日 : 2003년 5월 3일

4) 現病歴 : 상기 환자는 평소 예민한 성격을 가진 약답한 체격의 여성으로 2003년 5월 3일 돌보고 있는 6살된 손녀의 추락 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상기 증상이 발하여 별무 치료해오던 중 보다 적극적인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3년 5월 9일 본원에 내원하였다.

5) 望聞問切 : 食慾 正常, 消化 不良, 大便 正常, 小便 正常, 睡眠 入眠 힘들, 月經 2002년 8월 閉經, 舌紅苔少, 脈細數

6) 治療內容 : 加減淸心蓮子飲*

7) 治療經過 : 加減淸心蓮子飲 20첩 복용 후 2003년 5월 22일 두 번째 내원시에는 膀乾燥症, 上熱感은 줄어 들었으나 性慾減退는 여전히 납아 있었고, 後頭痛은 소실되었다. 다시 加減淸心蓮子飲 20첩을 복용한 후 2003년 6월 5일경에는 膀乾燥症과 上熱感은 소실되었으며 性慾減退도 호전되었다.

3. 증례 3

1) 姓名 : 김 ○ ○ (F/54)

2) 主訴 : 膀乾燥症, 頭痛, 頭重

3) 發病日 : 2001년 5월경

4) 現病歴 : 상기 환자는 건장한 체격의 여성으로 別無 他病해오던 중 2001년 5월경 발한 상기 主訴로 별무 치료해오던 중 보다 적극적인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1년 8월 13일 본원에 내원하였다.

5) 望聞問切 : 食慾 正常, 消化 正常, 大便 正常, 小便 正常, 睡眠 入眠 힘들, 月經 2001년 1월부터 양이 적어짐, 舌紅苔少, 脈細數

6) 治療內容 : 加減淸心蓮子飲*

7) 治療經過 : 加減淸心蓮子飲 20첩 복용 후 2001년 8월 29일 두 번째 내원시에는 膀乾燥症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頭痛, 頭重 그리고 入眠이 힘든 증상은 소실되었다. 다시 加減淸心蓮子飲 20첩을 복용한 후 2001년 9월 10일경에는 膀乾燥症이 소실되었다.

<처방내용>

加減淸心蓮子飲* : 蓮子肉去心 二錢, 白朮, 沙蔴, 麥門冬, 赤茯苓, 澤瀉, 地骨皮, 車前子 각 一錢半, 黃芩 一錢, 知母, 黃柏 各 五分

고 칠

질건조증은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보는 증상으로 문현상 독립된 질환명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갱년기 증후군 및 폐경의 한 증상이나 성교통의 한 원인으로 다루어진다. 폐경은 난소 기능의 감퇴에 의한 월경의 중단을 말하며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1년 이상 생리가 없을 때 폐경으로 진단한다. 갱년기란 이러한 폐경 전후의 수년 간의 과도기, 즉 여성의 가임기에서 비가임기로 넘어가는 폐경 전후 3~4년을 지칭한다. 갱년기에는 난소 기능과 내분비 변화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⁵⁾.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50세 전후이며, 평균 수명은 76세임을 비추어 볼 때, 25년 이상을 신체적, 정신적, 내분비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지내게 되어 골다공증 및 심혈관 질환에 이환될 확률이 높아져 질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폐경기 여성의 관리가 사회적, 의학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⁶⁾.

질건조증에 대하여 <생식의학>⁷⁾에서는 여성 성기능 장애의 유형 중 하나인 성교 불쾌증(Dyspareunia)의 원인으로 '질 윤활 액 부족(insufficient vaginal lubrication)'이란 용어를 썼으며, <폐경기 여성의 관리>⁸⁾에서는 폐경기에 나타나는 비뇨 생식기의 위축 증상으로 질 건조감, 성교통 등이 오며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질분비물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폐경기 건강>⁹⁾에서도 갱년기에 분비물이 감소하여 성교통을 느낀다고 했다. <폐경기 증후군의 치료>¹⁰⁾에서는 질건조증의 원인이 질주변 조직의 혈류량 감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男女病奇效良方>¹¹⁾에서는 隨道乾澀症으로 표현하고 "腎水不濟, 相火妄動, 灼傷陰津, 致使肝腎陰虛. 腎藏精, 開竅于二陰. 肝腎精血虧虛, 陰液不足, 前陰失其榮養而致陰道乾澀, 陰道陰脣生痛, 房事困難灼痛, 厥惡房事等症."이라 했다. 또한 <男女科病千首妙方>¹²⁾에서는 질건조증이 청장년의 기혼 여성에서 발병하는데, 분비물이 감소하여 痛痛이 발생하고 성교와 보행 곤란을 초래하여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워하며 정서적으로까지 억압된다고 하였다.

질건조증을 主訴症으로 임상 치료를 받으려 오는 경우에도 질건조증이 主訴症이라고 처음부터 밝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기운이 없어서 한약을 복용하려 왔다면서 처음에는 다른 증상들을 호소하다가 제일 나중에 조금 머뭇거리며 질건조증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것이 主訴症이나 처음부터 말하기가 쑥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도 치료가 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에서 얘기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질건조증은 그 자체로는 통증도 없고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도 않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나, 질건조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성교 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심해지면 성교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혹시 배우자가 변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며 여성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나아가 질건조증이 오래 지속되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므로 부인과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질환이라고 사료된다.

현재 양방에서의 질건조증에 대한 치료법은 에스트로겐의

질내 투여(질정, 크림링)나 윤활제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윤활제의 경우 성교시 매번 사용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일회성으로 성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질내 투여는 사용 방법이 번거롭고 흡수량이 일정치 않은 단점이 있으며, 간년기 이후로 오는 질건조증에 에스트로겐의 질내 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간년기 이전의 질건조증, 즉 에스트로겐의 분비 저하 없이 일시적으로 오는 질건조증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¹⁰⁾.

이에 저자는 “上盛下虛, 心火炎上, 口苦, 咽乾, 順渴, 小便赤澀, 成淋” 등의 痘症을 治療한다고 하였으며 後世 醫家들에 의해 泌尿器系 疾患, 神經 疾患, 婦人科 疾患 系統에 주로 사용되어온 加減淸心蓮子飮⁹⁾을 이용하여 膽乾燥症으로 본원에 來院한 3例에서 유의한 치료 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淸心蓮子飮은 1100年頃 陳師文에 의하여 발간된 <太平惠民和劑局方>에 最初로 收錄되어 있으며, 思慮勞力 營愁抑鬱로 心下蓄積되어 煩躁하거나 酒色過度로 心火上炎하여 口舌이 乾燥해지고 消渴이 되거나 小便白濁或有沙膜 夜夢走泄 遺瀝 便赤如血 한 경우 또는 婦人帶下에 使用한다 하였다¹³⁾. 上記 證例들에 사용한 處方은 <晴嵒醫鑑>에 수록된 加減淸心蓮子飮으로 蓮子肉去心 二錢, 白朮, 沙蔴, 麥門冬, 赤茯苓, 沢瀉, 地骨皮, 車前子 各一錢半, 黃芩 一錢, 知母, 黃柏 各五分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心火上炎, 口渴咽乾하고, 上氣不降으로 尿滯不利하며, 혹 尿赤白濁, 遺精, 帶下하는데 쓰이며, 加減淸心蓮子飮은 淸心蓮子飮의 變方으로 心火, 즉 神經性頻尿症 또는 上盛下虛性尿不利에 많이 응용된 處方이다¹⁴⁾. 構成藥物의 效能을 보면 蓮子肉은 淸心益腎, 健脾止瀉, 益腎固澁하며, 白朮은 補脾益氣, 燥濕利尿하며, 沙蔴은 養陰淸肺, 淸虛熱, 潤燥止咳하며, 麥門冬은 潤燥生津, 化痰止咳한다. 赤茯苓은 利水滲濕, 健脾和中, 寧心安神하고, 沢瀉는 利水, 滲濕, 淸熱하며, 地骨皮는 淸熱涼血, 退虛熱하며 車前子는 利水通淋, 止瀉, 明目, 祛痰止咳하고, 黃芩은 淸熱燥濕, 瀉火解毒, 安胎하며, 知母는 淸熱瀉火, 滋腎潤燥하고, 黃柏은 淸熱燥濕, 瀉火解毒, 安胎하며, 清虛熱한다^{15,16)}.

證例 3건에서 환자들의 연령대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更年期 및 閉經時期였으며 主訴症과 望聞問切에 根據하여 上盛下虛, 肝腎陰虛, 心火亢炎으로 辨證하여 加減淸心蓮子飮을 處方하였다. 이에 제반적인 증상에서 호전을 보여 양호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근래 여성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고 의료의 주제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여성의 간년기 및 폐경 후의 건강 관리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 여태까지의 질건조증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과 의사들의 접근 및 치료는 소극적인 면

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 앞에 질건조증 환자를 대함에 있어 한의학의 특성인 전인적인 접근 및 대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저자는 본원에 내원한 膽乾燥症 患者 3例에서 韓醫學의 辨證과 治方에 입각하여 加減淸心蓮子飮을 투여한 결과 양호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향후 환자와 의사들이 함께 膽乾燥症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한다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김로사 등. DITI를 이용한 간년기 환자의 체열 분포 양상.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14(3):58-69. 2001.
2. 백세현.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치료. 가정의학학회지; 18(1): 4-12. 1997.
3. 김승현 등. 간년기 증후군을 나타낸 조기 폐경 환자 치험 1례.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16(3):194-199. 2003.
4. 이정숙 등. 가미침심연자음 전탕액이 항 ALLERGY 반응과 MOUSE의 면역세포기능에 미치는 영향. 大韓外官科學會誌; 16(1): 31. 1993.
5. 박선영 등. 간년기 증상의 체질별 임상 양상 고찰.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15(1):139-147. 2002.
6. 이진용. 폐경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보충요법. 대한산부회지; 37(7):1333-1337. 1994.
7.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생식의학 간행위원회. 생식의학. 서울: 전남대학교 출판부. pp. 52-57. 1999.
8. 이진용 등. 폐경기 여성의 관리. 서울:칼빈서적. pp. 45-49. 1994.
9. 대한폐경학회 편찬위원회. 폐경기 건강. 서울:군자출판사. p. 77,233. 2000.
10. 오정렬. 폐경기증후군의 치료. 가정의학회지; 22(11):366-374. 2001.
11. 龐國明, 鄭万善. 男女病奇效良方. 中國医藥科技出版社. pp. 356-360. 1991
12. 楊中州. 男女科病千首妙方. 科學普及出版社. pp. 469-470. 1992.
13. 유동호. 淸心蓮子飮과 玉女煎이 Streptozotocin 투여로 유발된 白鼠의 고혈당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p. 22. 1990
14. 金永勳. 晴嵒醫鑑. 서울:성보사. p. 266. 1984.
15. 李尙仁 등. 漢藥臨床應用. 서울:성보사. p. 103, 127, 130, 134, 171, 175, 191, 359, 410, 414, 441. 1982.
16.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403, 670, 803, 820, 1024, 1097, 1368, 1462, 2019, 2031. 1979